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6. 3.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 품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2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코러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0장 9~13절

다 같이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결핍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졌고, 동생 라헬과의 끊임없는 '자녀 낳기 경쟁'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아들들을 얻으며 기세를 높이자, 오늘 본문에서 레아 역시 인간적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여종을 통한 출산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적 관습이었습니다. 즉, 레아는 철저히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지 돌아보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한계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연약함

본문 9절 "레아가 자기가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는 이미 네 명의 아들(루벤, 시몬, 레위, 유다)을 낳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유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반격과 자신의 출산이 멈춘 상황을 마주하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급해집니다. 결국 그녀는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던 '여종을 통한 대리 출산'이라는 인간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신앙적 침체와 연약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이 잠시 닫히거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세상의 풍조와 인간적인 꾀를 부리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라며 타협하는 순간이 바로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던 순간입니다.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 붙잡으려는 '나만의 실바'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개인과 가정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간의 성공 속에서 느끼는 세속적인 안도감

본문 10~11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인간적인 계략은 보기 좋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레아는 "복되도다 (행운이 왔도다)" 외치며 아이의 이름을 '갓 (Gad, 행운, 군대)'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친아들들을 낳을 때 레아는 고통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막연한 '행운 (Fortune)'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신앙적 고백이 아닌, 경쟁에서 이겼다는 인간적인 안도감과 세속적인 만족에 도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법이나 세속적인 노력이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빠진 성공, 하나님에 대한 감사 대신 "운이 좋았다", "내 인맥과 수단이 통했다"라고 말하는 안도감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세속적 기준의 승리에 도취되어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결핍 앞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붙잡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